

제시문 심층면접 면접 예상질문 & STAR 모범답안

「면접끝판왕」 통합개정판 교재 코어 무료 공개 문항 · 2026학년도 기준 · 평가 의도와 STAR 구조 모범답안 예시 수록

Q1. ‘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’이라는 공리주의 원칙은 민주사회의 다수결 원칙과 그 맥이 닿아 있다. 그러나 다수의 행복을 늘리기 위한 선택이 소수의 희생을 전제로 한다면, 그 선택은 여전히 정당하다고 할 수 있을까? 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 근거를 들어 말해보세요.

· 출제 의도 공리주의적 사고의 장단점을 이해하고, 다수결 원칙의 한계와 소수자 보호라는 상충하는 가치 사이에서 논리적으로 입장을 정립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.

[결론(입장)] 다수의 행복이 소수의 '기본권 침해'를 전제로 한다면 그 선택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.

[근거] 공리의 총량 계산에는 고통의 '분배'가 빠져 있습니다. 다수결이 정당한 것은 절차이기 때문이지, 결과의 선택을 보장해서가 아닙니다.

[반론 검토] 물론 재난 상황의 자원 배분처럼 총량적 판단이 불가피한 영역도 있습니다. 그러나 그 경우에도 침해 최소성과 사후 보상이라는 제한 조건이 붙어야 합니다.

[적용·마무리] 예컨대 소수 지역에 혐오시설을 집중시키는 결정은 다수결로도 정당화되기 어렵고, 보상·순환 배치 같은 보완 장치가 함께 설계될 때만 수용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.

☑ 코칭: 제시문 면접의 정석: ①입장 선언 ②원리 근거 ③반대 입장의 가장 강한 논거 검토 ④현실 사례 적용. 반론 검토가 당락을 가릅니다.

Q2. 기업이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경영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직무를 맡는다고 가정해보자. 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핵심 자질 세 가지를 제시하고, 왜 그 자질이 필요한지 각각의 이유를 설명해보세요.

· 출제 의도 경영 컨설팅 직무에 대한 이해도와 자질을 분석적으로 제시하는 능력, 그리고 두괄식으로 논리 구조를 구성하는 의사소통 역량을 평가한다.

[결론] 문제 정의력, 데이터 해석력, 그리고 이해관계자 설득력의 세 가지를 꼽겠습니다.

[근거1] 기업이 스스로 못 푸는 문제는 대개 '증상'만 보이고 '원인'이 규정되지 않은 문제이므로, 문제를 다시 정의하는 능력이 출발점입니다.

[근거2·3] 다음으로 가설을 검증할 데이터 해석력이 없으면 진단이 인상비평이 되고, 마지막으로 아무리 옳은 해법도 실행 주체를 설득하지 못하면 보고서로 끝나기 때문입니다.

[사례·마무리] 학교 축제 예산 갈등 때 저는 '예산 부족'으로 보이던 문제를 '우선순위 합의 부재'로 재정의하고 설문 데이터로 설득해 합의를 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. 이 세 자질은 실제로 함께 작동할 때 힘을 냅니다.

☑ 코칭: 자질 3개 요구형은 나열이 아니라 '왜 이 순서인가'(진단→검증→실행)의 논리 사슬로 묶으면 종합사고력 점수가 올라갑니다.

Q3. 자연수 조건을 만족하는 두 함수 $f(x)$, $g(x)$ 가 있고, 이 함수들로 만든 극한값 $L = \lim_{x \rightarrow \infty} [f(x)/g(x)]$ 가 주어진 조건을 만족한다. (1) 주어진 조건으로부터 $f(x)$, $g(x)$ 의 차수와 계수 관계를 추론하여 그 근거를 설명하시오. (2) 이를 바탕으로 극한값 L 을 구하고, 극한이 존재하기 위한 차수 조건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시오.

· 출제 의도 함수의 극한 개념과 다항함수의 차수·최고차항 계수 관계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, 조건을 식으로 변환해 논리적으로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.

[결론(접근 선언)] 저는 먼저 조건에서 두 함수의 차수 관계를 확정하고, 그다음 계수 조건으로 후보를 좁히는 두 단계로 접근하겠습니다.

[풀이 구조(1)] 극한값이 0이 아닌 유한값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분자·분모의 최고차항 차수가 같다는 뜻이므로, 자연수 조건과 결합해 가능한 차수 조합을 먼저 확정합니다.

[풀이 구조(2)] 이후 L 값을 최고차항 계수비로 표현하고, 자연수 제약을 대입해 만족하는 계수 쌍을 소거법으로 찾습니다. 검산은 원식에 대입해 극한을 재계산하는 방식으로 합니다.

[마무리] 만약 계산이 막히면, 구체적 소수 사례(1차/2차)로 실험해 규칙을 관찰한 뒤 일반화하는 전략으로 전환하겠습니다.

☒ 코칭: 수리 구술은 정답보다 '풀이 설계도'를 먼저 말하는 것이 핵심입니다. 막혔을 때의 대체 전략까지 말하면 최상위 답변입니다.

더 많은 문항·AI 채점 훈련은 interviews-platform.netlify.app 에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. (가입 없이 진단 체험 가능)